

車·조선 등 산업계 ‘노조리스크’ 확산… 하반기 수출 ‘위태’

노조간 파업연대 등 장기화 조짐
생산차질 등 브랜드 이미지 타격
“국가경제 치명적 영향 줄 수 있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조선업계가 또다시 파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

파업은 단순히 제품 생산차질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수출에도 치명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조와 갈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달 중순까지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계열사성 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최근 교섭권과 파업권 등의 문제로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대표교섭권 및 파업권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른 노조와 연대를 고심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전삼노는 1년이 되는 이달 초까지만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보장받았다.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을 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현재의 파업권 역시 잃을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전삼노를 비롯해 ▲구미네트워크(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0일 시청 남문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스시스

합 삼성전지지부(옛 DX노조, 5노조) 등 4개 노조가 있다. 이 중 3노조(동행노조)의 경우 전삼노의 총파업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측이 각각의 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 기준 최대 노조인 전삼노는 교섭대표의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전삼노(조합원수 3만 6000여명)의 대부분은 디바이스솔루션(DS) 소속으로, 이들의 파업은 주로 반도체 생산차질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 가결이 결정되면서 지난 19일 중앙노동

위원회(중노위)로부터 받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포함해 모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과거 현대차와 단체교섭 동조화를 보여왔던 것과 달리 기아 노조는 최근 독자노선을 강조하면서 임단협 잠정 합의를 예단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기아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를 놓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75세 나이 제한과 할인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할 것과 관련해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는 연령 제한 없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구매 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아 노조가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에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강경한 입

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의 경우 지난달 2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파상파업(계일리성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 달째 계속된 파상파업에 약 2만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수출물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르노코리아도 노사간 기본급 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KG모빌리티는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인상률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부결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완성차업계의 파업 리스크로 지난달

국내 생산 자동차는 2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 같은 달 자동차 수출액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1% 줄었다.

HD현대도 조선 및 건설기계, 전력기기 계열사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이 올해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큰 폭의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일렉트릭지회, 건설기계지회는 지난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이들 중 현대중공업지회와 현대일렉트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HD 현대의 다른 조선 계열사 노조인 현대삼호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세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韓, 트럼프 당선시 대중수출 6% 이상 감소”

한은 관세 등 미·중 갈등 격화 전망
“과거만큼 호조 기대하기 어려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교역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면서 중간재를 자립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미·중 갈등으로 한·중간 생산 연계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이 이뤄져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對) 중국 수출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24년 19.1%로 감소했다. 미국이 같은 기간 17.1%에서 1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韓, 중국 기술수준 개선에 수출 비중 급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부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한 최종재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직접수출’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개선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최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디스플레이는 한때 대중 수출의 20%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자동차도 현지 생산 규모가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과의 생산분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수출(수출연계생산)’은 증가하는 추세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부품을 만든 뒤 중국에 수출하거나 추가 가공과정에서 국내 생산에 재투입된 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다.

최 과장은 “2020년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비중은 25%에 불과했다”면서도 “국내 수출용 중간재 생산활동의 35%가 중국을 목적지로 한 것을 봤을 때 연계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연계생산마저도 2022년부터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중국내 생산 부진과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지가 전략적으로 아세안(ASEAN) 등으로 이동하면서 수출연계생산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시 중국 수출 6% 감소

이날 한은은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

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2010년 후반부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아세안, 개발도상국인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수입비중을 늘리고,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수입국 비중은 한국(-2%), 미국(-3.8%), 일본(-2.5%)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2.3%), 러시아(+2%), 중동(+1.3%)이 증가했다. 트럼프 후보가 공언한대로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상당폭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해리스 후보가 기존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경우 대중 수출은 3% 가량 줄어들겠지만 트럼프는 6%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5% 감소하고, 우리의 GDP도 1%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흐름이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달 물가상승률 1%대 달성 가능성”

한은 머신러닝기법 활용 예측

한국은행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단기 물가 흐름을 예측한 결과 8~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고, 공공요금 조정된다면 9월 물가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부문별 물가상승률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머신러닝 기법과 상향식 추정을 결합한 예측모형을 개발해 물가 전망에 반영했다. 국제유가, 환율, 실업률 등 주요 거시변수와 세부 품목별 물가지수, 주요소 판매가격, 농축수산물가격, 공공요금 등의 미시변수 등 2300여 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한은은 이날 예측 모형을 통해 소비자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은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고, 석유류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돼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원물가는 더딘 수요회복 등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

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한은은 8~9월 공급물가지수와 소매 판매액지수를 포함한 근원상품 가격상승률은 1% 후반수준을 유지하고, 집세를 제외한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률은 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집세는 그간 전세가격 상승세 등이 반영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9월 물가가 1% 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동재 한은 과장은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최선의 예측치는 2.0%”라면서도 “유가가 환율이 더 하락하거나 공공요금 등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2%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해 8월 이후 유가·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지난해 8~9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8월·10월 급격히 올라올해 예상보다 더욱 하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앞으로 물가 흐름은 공급 충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목표수준을 향해 안정적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정세, 기상여건, 등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